



우리의
家章

靑松沈氏宗報

發行人：沈斗燮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五世祖 靑原君 諱 淙(휘:종) 墓碑文



▶소재지: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공(公)의 휘는 종(淙)이요 시조 문림랑공 휘 홍부(始祖 文林郎公 諱 洪孚)의 4대손으로 청송인(靑松人)이다.

공은 조선조(朝鮮朝)초에 좌정승(左政丞)을 역임하신 청성백 휘 덕부(靑城伯 諱 德符)의 7형제 중 여섯번째로 출생하였으나 자(字)와 호(號) 출생년도가 모두 부전(不傳)으로 알 수 없는 바 형님이신 안효공 휘 온(安孝公 諱 溫)이 1375년생인 것으로 미루어 공은 1377년에 출생하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성품이 온화하여 태조 이성계(太祖 李成桂)로부터 청성백(靑城伯)에게 사돈 삼기를 요청하여 태조의 2녀 경선공주(慶善公主)를 맞아 부

마(駙馬)가 되니 16세 정도로 추정되며 태조 2년 10월 17일 청원군(靑原君)에 봉군(封君)되어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태조 7년 제1차 왕자(王子)의 난(亂)이 일어났을 때 정안군(靖安君)을 도와 정종(定宗) 즉위에 공훈을 세워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태종 8년 청원군에게 직접 경상도 절제사(慶尙道 節制使)를 제수하였으며, 태종 10년 4월에는 태종의 모후 신의왕후 한씨(母后 神懿王后 韓氏)의 명복을 비는 연화경법회(蓮華經法會)에 헌향사(獻香使)로 파견되어 헌향하였다.

태종 13년 가을에 임금이 전라도에서 실시된 무예(武藝)훈련에 거동할 때 청원군

께서 배종(陪從)하게 되었으며, 그 때 전주에 체류하는 동안 입실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회안군(懷安君)이 보내온 생강 한상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주상께 고하지 않고 지내온 것을 문제삼아 다음해 사헌부에서 청원군의 불충한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탄핵을 받게 되었다. 이에 상감께서 사헌부에 이르기를 「불충한 사람은 법에 의해 조처해야 한다. 그러나 외방에 자원부처(自願付處)하되 편의를 살피고 반드시 생명을 보전하게 하라」하였다.

태종 16년 11월 9일 공의 원(願)에 따라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파주 교하(郊河)로 안치되었으며 얼마 후에 공신들이 주청하기를 우리는 서로 정사(政社)를 맹약하고 거사하여 공신이 되었는데 종사(宗社)와 관계되는 죄가 아니면 벌을 주지 않음이 마땅하다고 아뢰었다. 그러나 다음날 6조(曹)의 대간(臺諫)들이 청원군의 죄목을 들어 다시 취조하기를 주청하자 태종이 「청원군의 죄상이 크지 않고 이미 당사자를 외방으로 안치하였는데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대간들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누차 주청함에 따라 공을 황해도 토산(兔山)으로 옮겨 안치하라는 교시를 내렸다.

다음해 안치소에서 득병(得病) 하였으나 간병(看病)이 부실하여 병세가 악화되고 끝내 회생하지 못하였으니 아 슬프다! 태

종 18년 3월 15일 생을 마치니 향년(享年) 42세이다.

이날 강풍이 회오리치고 때 아닌 우박까지 내림에 세인들이 말하기를 공의 죄가 사소한데 가혹한 벌을 주었으니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공은 따님 한 분만 두셨는데 덕수이씨 춘당공 휘 양(德水李氏 春塘公 諱 揚)의 장자 명신(明晨)에게 출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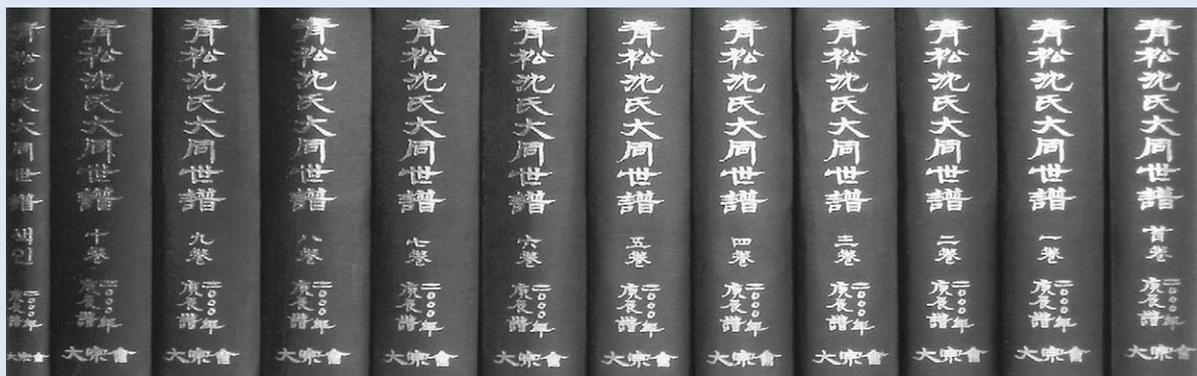
명신(明晨)은 지돈령부사 증시 강평(知敦寧府事 贈諡 康平)으로 1남 1녀를 두었는데 증손 용재 이행(容齋 李衍)은 해동강서시파(海東江西詩派)의 종주(宗主)이며 도학(道學)에는 5대손 율곡 이이(栗谷 李珣)선생이 있고 동방의 이태백으로 불리는 6대손 동악 이안눌(東岳 李安訥)과 조선조 4대 문장가인 7대손 택당 이식(澤堂 李植)이 있다. 이외에 상신 7명과 대제학 5명을 배출하였으며 대대로 효행(孝行)이 지극하여 외손봉사(外孫奉祀)로 지금에 이르니 6백년간의 독실(篤實)함이 후손에게 효(孝)의 귀감(龜鑑)이다. 이에 덕수이씨 춘당공 문중과 속의(熟議)하여 공(公)의 약기(略記)를 돌에 새기어 세우노라.

靑松沈氏大宗會 謹啓

* 대종회에서 10월 10일 靑原君 墓碑를 새로 찬하여 건립하고 兩位分 山所莎草와 주변 淨化作業을 마친 후 德水李氏 春당공파 문중과 함께 告由祭를 奉行하였다.

- 끝 -

大同世譜(庚辰譜) 申請案內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경진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 1권)
- ◆ 보급가격 : 22만원(별도구입시 수권 : 40,000원)
- ◆ 송금구좌 : 농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종회)
-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종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입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종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shim.or.kr)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대동세보 속편(靑松沈氏世考選, 祭享笏記, 宗보축쇄판, 手帖, 뺏지 포함) : 100,000원

『책자 강매』 주의

대종회를 사칭하면서 책자 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종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외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조 비밀편지 299통 공개

“호래자식... 주둥아리...젓비린내” 거침없는 어찰로 국정장악

▼ 정조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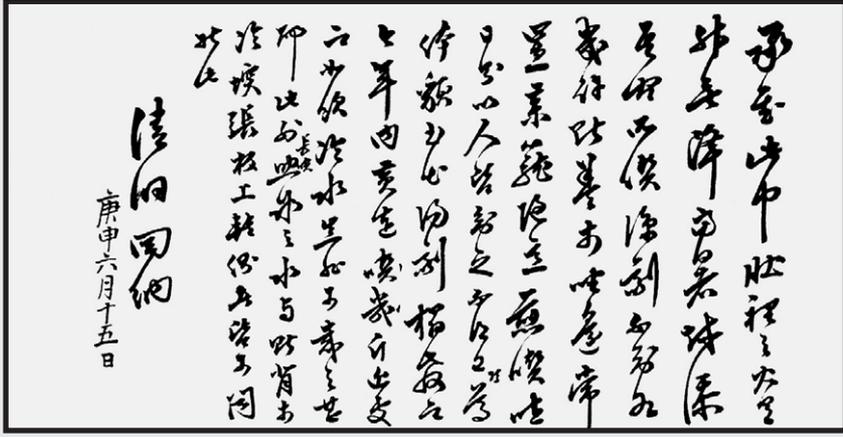


▼ 심환지



정조가 심환지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왼쪽 끝에 심환지 가문에서 ‘경신유월십오일(庚申六月十五日)’이라고 수신일을 적었다. 1800년 6월 15일이다. 이로부터 13일 뒤 정조는 서거했다.

▼ 마지막 어찰



正祖가 沈煥之에게 보낸 편지 주요 내용
이 편지는 보는 즉시 찢어버리든지 세초(洗草) 하든지 하라! 한 가지 염려가 늘 떠나지 않는 것은, 비록 집안에서라도 흑시 조심하지 않는 데 있다. 경이 만약 각별히 치밀하게 한다면 이런 염려가 어디서 나오겠는가? (1797년 7월 7일)
계속 나랏일로 바빠 아마도 쉴 틈이 없을 것이다. 밤사이 잘 있었는가? 요사이 소

식은 어쩌서 알려주지 않는가? (1797년 4월 10일)
나는 이처럼 경을 격의 없이 대하건만 경은 갈수록 입을 조심하지 않는다. 이후로는 경을 대할 때 나 역시 입을 다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스운 일이다. 참으로 이른바 “이 떡을 먹고 이 말을 참아라”는 속담과 같으니, 다시금 명심하는 것이 어떠한가? (1797년 4월 10일)

이 사람은 그저 열량세태(炎涼世態)만 볼 뿐이다. 참으로 호래자식이라 하겠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근래 하는 꼴이 점점 본색을 가리지 못하니 어찌하겠는가? (1798년 8월 16일)
요즘 누가 찾아왔는가? 귀에 들어오는 시사(時事)가 있는가? 첫 연석에서 잠자코 있기는 어려우니, 좋은 이야기거리를 찾아야 한다. (1798년 10월 7일)

황(黃昇源)처럼 간신히 사람 모습을 갖춘 자가 감히 침을 튀기며 변명하는 것도 부족하여 그가 그 일을 조사한 것은 염방(廉防) 외에도 기강에 크게 관계된다.

(1798년 3월 17일)
나는 요사이 놈들이 한 짓에 화가 나서 밤에 이 편지를 쓰느라 거의 5경이 지났다. 나의 성품도 별나다 하겠으니 우스운 일이다. (1799년 11월 24일)

300장 안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이미 그럴 것이라 생각하였다. 앞으로 기나긴 세월이 있으니 어느 때인들(합격) 할 수 없겠는가? 내가 굳이 이번에 하려고 한 것은 경이 심하게 노쇠하기 전에 자식이 과거에 합격하는 경사를 보도록 하고 싶었다.

(1799년 10월 1일)
나는 배속의 화기(火氣)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지는 않는다. ... 올 한 해 동안 황련(黃連)을 1근 가까이 먹었다. 마치 냉수 마시듯 하였으니 어찌 대단히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밖에도 항상 얼음물을 마시거나 차가운 온돌의 장판에 등을 붙인 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일이 모두 고생스럽다. (1800년 6월 15일)

정조의 비밀편지 299통의 일부본

十三世祖 贈參判 行判官 諱 挺世 墓誌銘



▶ 소재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 묘비석

공의 휘는 정세(挺世)요 우리 沈氏는 계통이 靑松에서 나왔고 고려조의 문림랑위위승(文林郎衛尉丞) 휘(諱) 흥부(洪孚)이 13世孫이다. 2세조 휘 연(淵)은 고려조의 합문지후(閣門祗候)요, 아드님 휘 용(龍)은 고려조의 문하시중 청화부원군(門下侍中靑華府院君)이며, 아드님 휘 덕부(德符)는 고려조의 보국승록대부 좌시중 중의백이요, 조선조에 들어와 좌정승(左政丞)에 임명되고 청성백(靑城伯)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정안공(定安公)이다. 아드님 휘 온(溫)은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요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이며 시호는 안효공(安孝公)이고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아버지요,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 조정에 들어가서 그때를 틈타서 소인 박은(朴崑)이 태종(太宗)에게 참소(譫訴)하여 사신(使臣)을 보내서 압록강에서 기다리게 하고 즉시 수원으로 압송(押送)하여 사사(賜死)하였으니 향년이 44세요 뜻밖에 흑독하게 참화(慘禍)를 당하여 지극히 원통하더니 太宗과 世宗이 승하(昇遐)하고 文宗이 대통(大統)을

이므로 즉시 신원(伸冤)되고 복작되었다.
아드님 휘 회(繪)는 정난의대좌리공신 대광보국승록대부(定難翊戴佐理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영의정 겸 춘추관 예문관 홍문관 관상관 영사 세자시강원사 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이요 시호는 공숙공(恭肅公)이다. 아드님 휘 순문(順門)은 의정부 사인(舍人)이요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아드님 휘 연원(連源)은 문과에 급제하였고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요 시호는 충혜공(忠惠公)이며 명종묘(明宗廟)에 배향되었다. 아드님 휘 강(綱)은 영돈녕 청릉부원군(淸陵府院君)이요 시호는 익효공(翼孝公)이며 영의정에 증직되었고 인순왕후의 아버지이시다. 아드님 휘 인겸(仁謙)은 온양군수요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에 증직되었다. 아드님 휘 엄(嚴)은 옥과(玉果)현감으로써 영의정에 증직되었으니 즉 공의 아버지이시다. 공은 나면서부터 총명하고 무리에 뛰어나 고상한 마음으로 속세를 벗어났고 도량이 크며 뜻이 원대(遠大)하였다. 군자감 판관으로써 바

야흐로 임금을 돕고 백성을 은혜로 다스려 그 뜻을 통달하려 하였으나 큰 뜻을 펴지 못하고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의 사위라는 이유로 화(禍)를 입어 옥사하였다.

이 때 광해군의 폭정에 이이첨(李爾瞻)이 농간(弄奸)하여 권세를 잡아 연흥부원군이 광해군을 폐위(廢位)하고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옹립(擁立)하려고 한다는 말을 유포시켜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강화도에서 죽이고 연흥부원군도 죽이며 그 아들 둘과 사위를 동시에 투옥하여 엄형으로 다스렸으나 불복(不服)하자 癸丑年 5월 24일 獄中에서 사사(賜死)되니 향년이 35세였다. 아! 슬프도다. 광해군이 또 별궁(別宮)에 폐모(廢母)하였으니 아들로서 어머니를 폐한다는 것은 천하에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죄악이 하늘을 뚫었으니 어찌 오래 가리오 하늘의 해가 다시 밝아져 仁祖가 反正하자 광해군을 폐하고 이이첨 등을 죽이며 신원(伸冤)되어 가선대부 호조참판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증직되었다.

배위는 연안김씨 연흥부원군의 따님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계배(繼配)는 광산김씨 서윤(庶尹) 호수(虎秀)의 따님이다. 아드님의 휘 진(?)은 가화(家禍)의 나머지 겨우 열두살에 세상에 뜻이 없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청천(靑川)으로 낙향하여 숨어살며 벼슬하지 않고 문을 닫고 객(客)을 사절하며 조정의 득실과 세간의 시비를 들으려고도 알리고도 하지 않고 한 시령의 금서(琴書)에 날마다 취미를 부치고 스스로 즐기며 나라에서 여러 번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고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이 되었다 날마다 우암(尤菴) 宋生생과 더불어 회양암처재(華陽巖棲齋)에서 도(道)를 강론하니 선생이 그 당호(堂號)를 일한당(一閑堂)이라 지어주어 자손이 이로 인하여 살게 되었다.

아직도 묘소에 비석이 없고 모양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비석을 세우니 지난날을 생각하면 감모(感慕)하는 마음이 움직이어 슬픔을 이루 다 말 할 수 없도다.

단기 4320년 정묘 2월

13대손 聖錫이 삼가 짓고
대한서예교육진흥회 회장 고령후인 洛山 申達兩가 삼가 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 ②

대중회 부회장 심 갑 보



엑셀런스 발행인이 만난 CEO - 삼익THK 대표이사 부회장 심갑보

Interview 유승용 Editor 양준영 Photographer 김성호

정도경영 선포후 외길 걸어

▶**유승용** : IM가이드 도입과 생산 등에 성공하며 부회장님께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소기업을 지금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 수십 년간 경영 일선에 계시면서 맞닥뜨린 위기는 없었는지요?

▶**심갑보** : 경영자가 아무리 기업경영을 잘해도 대내외적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도 하루아침에 도산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당시의 경우도 창사 이래 위기에 처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1970년에 있었던??임시특별관세??과다부과로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당시 수입물품 수요 억제와 국제수지 균형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1964년 제정된 임시 특별관세 제도가 있었는데 세액은 수입 원자재를 사용해 만든 제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5개 조사기관에서 당시의 원자재 소매가격을 도매가격으로 착각해 조사한 후 재무부에 보고했고, 재무부에서는 이를 근거로??특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영세기업이던 당시1년 외형 금액이 무려 8%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 당했습니다. 만약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도산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부산세관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각각당해 재무부에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제도가 없어졌지만, 당시로서는 정부에서 결정할 일을 소원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구제해주는 일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아무도 승소하리라 보지 않고 낙담하던 차였습니다. 당시 상무이사로 이 사건의 실무책임자였던 저는 전문가를 동원해 조사 결과의 오류를 여러 경로로 입증한 보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1970년 6월 재무부 소원심사위원회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납부 세金的 80%에 달하는 금액을 환급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큰 사건은 경쟁업체의 신고로 1976년 탈세 혐의를 받고 대구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 사찰을 받았지만 무고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당시 세무사찰은 기업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4개월에 걸친 긴 정밀 세무조

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결과??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회사??로 세간에 알려지는 등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습니다. 만일 일찌감치 정도경영을 선포하고 실제로 모든 기업 활동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때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승용** : 그 당시 이미 정도경영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도경영을 하다보면 때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텐데,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서 정도경영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심갑보** : 창업초기에 영업사원 한 사람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발하려고 했는데 왜 나만 걸고 넘어지나면서, 당사들은 깨끗하고 도리어 대들었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도경영의 중요성을 깨닫고 강력하게 실시하게 됐습니다.

1970년대에 전기밥솥 등과 같은 전자제품을 생산한 적이 있습니다. 2만원짜리를 팔면 6,000원 정도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붙었는데 다른 기업들은 다들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 중에서도 왜 우리만 곧이곧대로 세금을 다 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탈루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정도경영을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낫다고 판단한 당시 대표이사(현 명예회장)의 결단에 따라, 결국 그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비단 회사만 정도경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부동산투기나 불법??편법적인재테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강남 일대에 투자했다면 적지 않게 돈을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지난 27년 동안 줄곧 수유리에 있는 집에서 살다가 14년 전에 일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처럼 정도경영은 나부터 실천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잠시 경제가 어려웠던 1980년 초 창사 이래 최초로 감원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영업용 차량이 아닌 경영진 차량부터 매각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승용** : 삼익THK는 성숙한 노사문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사문화를 발전시켜왔는지 궁금합니다.

▶**심갑보** : 정부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권유를 하기 10년 전부터 이미 스스로 노사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종업원 대표와 회사 대표가 수시로 만나 경영을 논의했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든 적게 나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회사의 경영현황을 알리고 목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무엇보다 종업원의 회사에 대한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도경영을 펼치는 것은 노사관계에서

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경영진이 정도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약점을 들고 늘어지는 노조의 압박에 시달려 제대로 경영을 못했을 겁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데 종업원의 협력은 절대적입니다. 삼익THK는 금년까지 49년째 단 하루도 노사분규로 문을 닫아본 적이 없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점중시경영으로 인재육성

▶**유승용** :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노사관계 못지않게 필수적인 요소는 유능한 인재일 것입니다. 어떻게습니까? 삼익THK만의 인재경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심갑보** : 본사는 대구에 있습니다만 현재 매출의 70%가 경인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영업사원 및 내근 직원 충원을 위해 수도권 대학에 공문을 보내 졸업생들을 유치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다들 대기업만 선호하고 자신이 잘 모르는 회사에는 절대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저희는??장점중시경영??이라는 인사관리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IM가이드를 생산해 납품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여건으로는 이른바 일류대학 출신 인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대신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기계??전자 관련학과 출신자를 선발해 그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사내교육과 합작회사인 일본 THK의 파견 훈련, 사외 위탁교육 등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켜 업무를 수행토록 했습니다. 입사시는 물론, 이후에도 학력보다는 능력과 업적 성취를 중시하며 승진, 승급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견기업치고는 교육 훈련비를 많이 지출하는 편입니다.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인재를 계속 육성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중시경영의 결과, 1989년 상장한 이래 경쟁 업체의 추격을 뿌리치고 줄곧 선두기업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 부회장은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시며 늘 주목받는 선배 경영자로 자리매김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책도 내시고 다이내믹한 홈페이지를 선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갑보** :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사무엘 만의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외국에서는 사람을 볼 때 능력을 따지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나이를 따지는 문화가 강하는데 저는 이게 불만입니다. 저는 1936년생이지만 경영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배우고자 하는 열의는 누구 못지않게 강하다고 자부합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3일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찬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면서도 업무를 다 보고 틈틈이 강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 잡지에 지난 10년간 칼럼을 기고했고, 그것들을 모아 책도 펴내는 등 저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나이보다는 능력에 의해 평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CEO의 경우는 더

그렇고요.

▶**유승용** : 방금 하신 말씀은 최근 내신 저서의 제목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과 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꿈꾸고 계신 비전이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삼익THK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갑보** :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정치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도 대학원도 정치학을 전공했구요. 공부를 하면서는 장차 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접고 토목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공학 관련 지식이나 경험은 전무해 정말 막막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것,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누구는 날 때부터 아는 사람 있냐.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해 1년 만에 토목기사 자격증을 땀습니다.

이후에도 삶 속에서는 늘 도전하고 부딪치며 고난을 극복해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는 잊을 수 없는 은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이신 진우석 명예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끌어 경영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명예회장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명예회장은 제게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저희 집의 가훈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라" 입니다. 머리가 우수한 것도,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좌우명을 실천하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익THK의 목표는 현재 제품 중 60%는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 40%는 수입하고 있으나, 앞으로 100% 자체 생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품 직접 판매보다는 부품을 조립해 반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더 큰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용**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가곡을 멋지게 부르시는 등 노래에 일가견이 있으신데 앞으로 CEO 자선 행사 같은 자리를 마련해 부회장을 제일 먼저 초청하고 싶습니다. 흔쾌히 응 해주시리라 믿고, 앞으로도 멋진 경영자로, 멋진 인생의 선배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벽에 걸려 있는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한테서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자기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는 이 글은 안병욱 송실대 명예교수가 심부회장에게 준 친필 휘호였다.

이것은 아마도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공부하는 CEO로 유명한 만큼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관리에 철저하며, 과욕과 허세를 경계하는 심 부회장에게 휘호를 선물한 안 교수는 아마 가장 현명하고 강하고 부유한 CEO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끝>

효부(孝婦)며느리에 대한 추억

세상은 세월이 흐를수록 야박해지기만 합니다. 아이들 기르기가 두려워 시집가지 않으려는 처녀들이 늘어나고, 시어머니와 의 갈등 때문에 남편과의 이혼도 사양하지 않는 세태로 변해가고만 있습니다.

이유야 없지 않겠지만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은 결코 행복하거나 화목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의 반증임은 분명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아들 여섯과 딸 셋을 낳았지만, 모두 잃고 아들 둘과 딸 하나만 장성해서 남훈여가를 시켰습니다. 둘째 며느리 청송심(沈)씨는 대단한 명문집안의 후예로 1800년 봄에 15세의 다산 둘째 아들 학유(學游)에게 14세의 처녀로 시집을 왔더랍니다.

심씨는 신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나라와 집안에 큰 일이 일어나 편할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집오던 여름에 정조대왕이 갑자기 붕어하여 나라가 혼란스러우면서 다산 집안에도 화색(禍色)이 완연한 실정이었습니다.

결혼한지 1년도 되지 않은 1801년 연초부터 이른바 '신유옥사'라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 다산 3형제가 감옥에 갇히고 국청이 열려 다산은 경상도 포항 결의 장기로 귀양가자 심씨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정을 다산은 「효부심씨묘지명」이라는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신유(1801)년 봄에 나는 영남으로 귀양 갔다가 겨울에 강진으로 옮겨가고, 16년이 지난 병자(1816)년 8월 10일 효부는 죽었

고, 죽은 지 3년째인 1818년 가을에야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그 며느리의 묘에는 이미 풀이 우거져 있었다.…”라는 내용이 그때의 정황이었습니다.

다산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시어머니



다산은 다른 글에서도 시어머니 섬기는 방법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겨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만 여겨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며느리들이여, 집안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제발, 다산의 주장에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 옮겨온 글 (부회장 심상은) —
〈끝〉

며 삼가하는 행동을 했는데, 친정어머니처럼 시어머니를 섬겼고 친정어머니 사랑하듯 시어머니를 사랑했다(傳姑如母 愛姑如母)”라고 하더랍니다. 귀양가버린 남편 때문에 홀로 지내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섬기고 사랑했다니 그런 효부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1년도 함께 지내지 못한 다산은 며느리를 알 수 없었지만 함께 자고 먹으며 17년을 지낸 시어머니의 말이니 믿지 않을 수 없다면 효부인 며느리의 슬픈 사연을 다산은 글로 남겼습니다.

시집오면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소생도 없이, 시아버지의 귀향도 보지 못하고 떠나간 며느리를 슬퍼하던 다산의 심정이 드러나는 글입니다.

다산은 다른 글에서도 시어머니 섬기는 방법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겨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만 여겨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며느리들이여, 집안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제발, 다산의 주장에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 옮겨온 글 (부회장 심상은) —
〈끝〉

沈영감 심민섭



六世祖 恭肅公(諱:澮) 齋室



▲ 파주시 월릉면 영태리 공숙공 재실

完工한 祭閣은 덕선재(惠善齋)라 하였고, 三門에는 기자건문(起子建門)이라 칭하여, “선한 마음을 크게 베푸니, 자손들이 크게 일어나다.”라는 中始祖(諱:澮) 祖上님의 업적을 기리는 마음으로 작명하였습니다.

조만간 조촐한 준공식과 함께 고유제와 현판식을 갖고자 하오니 일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9월

六世祖 恭肅公(諱:澮)派 宗中 總務 光燮

派(地域) 宗會旗 製作 申請

2006년부터 우리門中의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각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宗회기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종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기존의 宗회기를 교체하거나
-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靑松沈氏大宗會(02-2267-7857)

宗會名	靑松沈氏	宗會
住所		
電話番號	宅:	- -
	휴대폰:	- -
제작금액	150,000원 (깃대포함: 180,000원)	

「涵虛亭」懸板詩

1890년대 유학자이신 石田(諱繼澤)공이 선조님의 얼이 담겨있는 涵虛亭에 올라 소회를 피력한 名詩를 현손 愚慶이 원문과 번역문을 다음과 같이 적어 보았다.

亭臺縹緲絕塵愁 (정대표묘절진수) 이 정자 아득히 세상이름 잊고서
 涵養乾坤浩氣留 (함양곤곤호기류) 하늘과 땅의 호연지기가 머물렀구나
 是我祖先曾學問 (시아조선증학문) 이곳은 우리 선조님이 학문을 익혔던 곳
 任他流俗自沉浮 (임타유속자침부) 흐르는 세월 속에 영고성쇠 겪었구나
 江山不換三公地 (강산불환삼공지) 이 강산은 재상 자리와도 바꾸지 않는 곳
 樵牧同遵一路舟 (초목동준일로주) 나무꾼과 목동이 짝을 지어 한 배길 오고 간다
 願使後孫能守保 (원사후손능수보) 원컨대 후손들이 잘 지켜만 준다면
 承家孝友萬春秋 (승가효우만춘추) 전해온 효우 만년토록 이어가리라

六世祖 恭肅公(諱:澮)派 宗中

- 會 長: 正輔 상열
- 首席副會長: 翁보 상열
- 總務理事: 광섭
- 禮典理事: 백강
- 財務理事: 상만
- 監理事: 윤보 총택
- 運營委員: 해철 상서 후섭 화섭 하섭 광섭
- 理事: 재영 갑택
- 홍대: 재섭 상직 대섭 현보 준보
- 홍대: 춘섭 선규 봉섭 상홍 창섭
- 상열: 춘택 양섭 준택 상철 정섭
- 상열: 완섭

六世祖 良惠公(諱:石雋) 秋享奉行

11월 6일(음 9월 20일)



良惠公 配位 14世祖 滄州公
 初獻: 晶求 英求 榮燮
 亞獻: 相直 求亨 仁燮
 終獻: 英輔 星求 愚成
 大祝: 相華
 執禮: 載求 執事: 鍾赫 載澈
 ▶ 祭需獻誠金
 滄州公宗會 500,000 贊求 副會長 100,000
 蔚山內禁衛公宗會 200,000

八世祖 節度使公(諱:安仁) 秋享奉行

11월 9일(음 9월 23일)



節度使公 9-10世 11-12世
 初獻: 贊求 求亨
 亞獻: 禎燮 峻植 大植
 終獻: 愚贊 愚夏 英輔
 大祝: 相華 執禮: 載求 執事: 鍾赫 載澈

七世祖 判官公(諱:潁) 秋享奉行

11월 22일(음 10월 첫째 日曜日)



初獻: 相烈 亞獻: 良燮 終獻: 星求
 大祝: 洪燮 執禮: 昌燮 執事: 奉燮 仁燮
 * 八世祖 敦寧府都正公(諱 順道)
 * 九世祖 贈戶曹參議公(諱 巨源)
 * 十世祖 造士公(諱 鏞)
 * 十一世祖 督戰督運使公 諱: 宗明
 ▶ 祭需獻誠金: 相萬(당진) 100,000원

七世祖 忘世亭公(諱:堉) 秋享奉行

11월 9일(음 9월 23일)



忘世亭公 配位
 初獻: 晶求(宗회장) 完求(부회장)
 亞獻: 星求 忠植
 終獻: 仁輔 愚龍
 大祝: 相華 執禮: 載求 執事: 鍾赫 載澈
 ▶ 祭需獻誠金
 大宗會 → 青城尉(부마) 300,000 完求 顧問 200,000
 贊求 副會長 100,000

八世祖 舍人公(諱:順門) 秋享奉行

11월 5일(음 9월 19일)



舍人公 忠惠公 翼孝公
 初獻: 永澤(會長) 光澤(副會長) 昌燮
 亞獻: 祐燮 相勳 康燮
 終獻: 相憲 相汶 星求
 大祝: 相直 執禮: 容主 執事: 洪燮 明燮 百燮 載澈
 ▶ 祭需獻誠金
 夷敬公派宗會 載勳 1,700,000 忠翼公宗會 100,000
 春川信川公派 相汶 100,000 故相穆 婦人 100,000
 信川公宗會 100,000 安城 光澤 100,000

十一世祖 信川公(諱:孝謙) 秋享奉行

11월 25일(음 10월 9일)



初獻: 元輔 亞獻: 鍾赫 終獻: 允燮
 大祝: 相弘

十四世祖 晚沙公(諱:之源) 秋享奉行

11월 11일(음 9월 25일)



初獻: 晶求 亞獻: 鍾赫 終獻: 大植
 大祝: 相華 執禮: 載求 執事: 載求 昌輔
 ▶ 祭需獻誠金
 大宗會 → 青平都尉(부마) 300,000

七世祖 夷敬公(諱:瀚) 秋享奉行

11월 21일(음 10월 첫째 土曜日)



夷敬公 胡襄公
 初獻: 鑄澤(夷敬公宗會長) 鑄澤
 亞獻: 昌燮 愚夏
 終獻: 載應 仁輔
 執禮: 相勳 洪燮
 大祝: 相直 執事: 경선 載澈

九世祖 修撰公(諱:達源) 秋享奉行

11월 15일(음 9월 끝 일요일)



장소: 김포시 대곶면 약산 靑心齋
 初獻: 達燮 亞獻: 仲根 終獻: 昌燮 大祝: 相直

康主簿公(恭肅公 養父) 秋享奉行

11월 7일(음 9월 21일)



康主簿公 配位
 初獻: 永澤(會長) 永澤
 亞獻: 康鎮福 相天
 終獻: 宇正 載勳
 大祝: 相直 執禮: 洪燮 執事: 廣燮 載澈
 ▶ 祭需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夷敬公宗會長 鑄澤 100,000
 龜尾宗會 100,000 信川康氏 善山宗會 100,000

十一世祖 宣武功臣(諱:友信) 秋享節祀

10월 9일(음 8월 12일)



初獻官: 吳鍾南 羅州人 亞獻官: 邊東顯 黃州人
 終獻官: 奉炳國 陰隄人 祝 官: 金漢植 光山人
 執 禮: 李準泳 慶州人 掌 議: 孔在恩 李相鏞

九世祖 曉窓公(諱:逢源) 秋享奉行

11월 17일(음 10월 1일)



曉窓公 正字公 一松相公 僉正公
 初獻: 鎬元 弘來 鎬元 鎬榮
 亞獻: 榮燮 相華 仁輔 載求
 終獻: 星來 恒來 弘來 相厚
 大祝: 載求 相厚 相厚 相華
 執禮: 洪燮 執事: 載弘 憲圭

“靑松邑 中央地 公園化 事業”에 찬사를 보낸다.

靑松郡에서는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郡 中心部에 郡民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70여억원 이라는 巨額을 들여 만드는 이 공사는 靑松郡에 만들어질 관광벨트와도 무관치 않다. 여기에 첫 시작은 1차적으로 건물부터 철거하는 일이다. 두 번

째는 기존 운봉관을 헐고 그 자리에 高麗 때 지은 당시의 원형을 완전복원 하는 일로 原形대로 3채가 웅장하게 복원이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昭憲王후가 8대君이 뒹으로 지었다는 찬경루를 重修하는 일이었다.

찬경루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지붕

중심의 대들보에 금이가고 여러개의 서까래가 부식되어 할 수 없이 기둥과 도리만 남겨두고 上體는 完全 해체되어 대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 중수비만 4억1천만원이 소요됐는데 찬경루가 文化財이므로 文化財廳과 郡의 부담으로 이루어졌다.

讚慶樓 앞에 세워진 事蹟碑는 그 자리

에 연못을 만들 계획이라 하여 찬경루 옆으로 옮겨 세웠는데 前面에서 바라보니 적격한 자리에 세워진 것 같아 아주 보기가 좋았다.

이 公園은 來年에 完工될 예정이라 하니 하루빨리 完工된 모습을 보고싶다. 공원이 완성되는 날 公園中心에 우뚝 서있는 찬경루와 사적비를 새삼 바라보게 될 것이다.

- 련 -

안동청년유도회 「제32회 순회 누정(樓亭)강좌」 - 청송소재 찬경루(讚慶樓)에서 개최 -

안동청년유도회 “제32회 순회 누(樓)정(亭)강좌”가 지난 10월24일(토) 오후 3시 청송읍 찬경루와 운봉관에서 개최되었다.

안동청년유도회(회장 임대식)와 한자문화콘텐츠학회(회장 이종호)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한동수 청송군수와 이동수 성군관청년유도중앙회장을 비롯한 문화원, 유림단체, 청송심씨 문중 대표자 등 관내 주요 인사와 그리고 안동청년유도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송의 “찬경루(讚慶樓)”를 주제로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장인 권진호 박사의 학술 주제발표와 토론 등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권진호 박사는 강연을 통해 찬경루는 세종대왕비 소헌왕후 청송심씨 시조묘를 바라보며 “우러러 찬미한다” 뜻

에서 지은 누각으로 이곳 찬경루의 역사적 인물과 배경, 지리적 풍광 등을 설명하고 조선조 큰 거문인 청송심씨와 소헌왕후는 오늘날까지 이 지역 유교문화의 전통을 이어왔으며 특히 찬경루는 청송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아주 유서 깊은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강의와 토론을 마친뒤 참석자들은 찬경루의 걸린 안평대군이 쓴 “松栢岡陵”(지금은 한철유가 쓴 현판)이란 현판과 홍여방의 기문 등을 두루 살펴보고 그리고 찬경루에서 바라본 앞의 강과 현비암, 보광산의 풍광을 음미하면서 600여년전 당시 옛 선현들의 풍류에 몰입하는 한때를 가지는 아주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한편 찬경루는 조선 세종10년(1428년)당시 청송부사 하담(河澹)이 최초 건립하였으며 세종대왕의 아들인 안평대



군 등 여덟 왕자들이 외가인 어머니 소헌왕후 청송심씨를 위해 각 2칸씩 모두 16칸으로 지었으며 “송백강릉(松栢岡陵)”이란 안평대군의 현판(화재로 소실되어 지금은 한철유가 쓴 현판이 걸려 있음)이 있으며 지난 1984년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83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청송군이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찬경루와 청송도호부 관아 객사건물인 운봉관 복원정비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자료제공 : 청송군청 문화재 계장 심남규

고동한과

외국 바이어에 유과 선물하던 주부 韓菓회사 설립 10년에 매출 100억



교동씨엠 심영숙 대표

“전 세계에서 발효시켜 만든 과자는 한과(韓菓) 밖에 없어요. 첨가물 없이 천연 재료로만 만든 한과를 모양도 예쁘게 해 전 세계 식탁에 놓이는 디저트로 만들 겁니다.”

‘교동한과’로 한과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동씨엠 심영숙 대표는 40대 후반까지도 집에서 살림만 하던 주부였다. 당시 무역업을 하던 남편이 외국 바이어들을 위해 선물을 고르던 심 대표는 “이왕이면 한국

줄 테니 정식으로 사업을 해 보라”고 권유해 1999년 강릉 교동한과를 설립했다. “너무 재밌었어요 새 제품을 만들었는데 고객들이 좋아하면 얼마나 신이 나던지... 어떻게 10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맛있고 몸에 좋은 한과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회사는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며 설립한 지 10년만인 지난해 매출 100억원을 넘어섰다. 심 대표가 해외 수출 상품으로 개발한 제품이 ‘고시불’.

을 대표하는 전통음식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유과를 만들었다. 틈틈이 미술을 공부하던 심 대표는 이를 한지에 포장했고, 맛을 본 외국인들은 “선물하게 몇 상자 더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심 대표는 남편이 “밀어 줄 테니 정식으로 사업을 해 보라”고 권유해 1999년 강릉 교동한과를 설립했다. “너무 재밌었어요 새 제품을 만들었는데 고객들이 좋아하면 얼마나 신이 나던지... 어떻게 10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맛있고 몸에 좋은 한과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회사는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며 설립한 지 10년만인 지난해 매출 100억원을 넘어섰다. 심 대표가 해외 수출 상품으로 개발한 제품이 ‘고시불’.

심 대표는 “전 세계 사람 입맛에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한 결과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에 아기도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과자를 만들기로 했다”며 “여기에 제철 과일을 얹어 건조시킨 뒤 빵아 과자에 입혔더니 인기가 폭발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출시된 ‘고시불’은 매출이 급증해 회사 전체 매출의 15% 정도를 차지할 정도. 그는 최근 ‘한식의 세계화’와 관련 “웰빙 식품이라는 것이 장점이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심 대표의 한식과 한과에 대한 자량은 그칠 줄을 몰랐다. 심 대표는 “한과는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상할 염려가 적은 데다가 조청으로 코팅해 방부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는 식품이라며 “포장도 전통의 문양 등을 넣어 한국의 문화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에서 전제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1,134	50,000원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448	30,000원	()권
3. 종보축쇄판(1-50회)	400	20,000원	()권
4. 제향훈기(휴대용)	30	3,000원	()권
5. 종사수첩(휴대용)	120	3,000원	()권
6. 뺏 지		1,000원	()개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 ◆ 질단위 外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 ◆ 송금인이 본인인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 2, 3 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과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주 소		우 편 번 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은행 ()지점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TEL : 02)2267-7857, 2263-7897 FAX : 02)2269-7755

* 송금구좌 농협 084-01-179314(심명구)

人事

재환: 동부화재 중부지점장
 돈식: 금호생명 익산지점장
 달훈: 국세청 감찰담당관(이사관)
 성태: 국민은행 무역센터 지점장
 무경: 환경부 감사담당관 과장
 재철: 고려대 고대신문사 주간
 우진: 경향신문 기획인사 팀장
 재역: 서울신문 사회부장
 우섭: 서울신문 (부국장급) 감사부장
 수미: 일간스포츠 연예담당
 보균: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理事會費

春輔	2009	50,000	합정동
光燮	2009	50,000	대치동
載重	2009	50,000	대전(둔산동)
相貴	2009	50,000	정읍시
元植	2009	50,000	양평동
春植	2009	200,000	대중회갑사
載玉	2009	50,000	안동
殷植	2009	50,000	송파

宗報贊助

光州 斗岩宗會	500,000	
宣武功臣宗會	100,000	
春輔	100,000	마포
호섭	50,000	제천
승태	30,000	부천
德燮	100,000	김포
相旭	50,000	석관동
학춘	30,000	순천
勳輔	50,000	수유리
상운	30,000	속초
원석	50,000	천안
상주	50,000	인천
문진	100,000	평택(진위)
允燮	50,000	담십리

特別贊助

宜洛(大宗會 名譽會長)	1,000,000
태식(캐나다 거주)	1,000,000
安孝公宗會(靑原君 山所淨化)	200,000
內資寺判官公宗會(靑原君 山所淨化)	100,000

법곳종회



▲ 경기도 연천(법곳동 소종회 종중산) 山所

◆ **宗人 흥도 친목여행 실시**
 경기도(一山) 法串洞 마을은 행주 나루와 대표적인 강가 마을이고, 청송심씨 문종이 10대째 터를 잡아 현재 5대(燮-載-輔-揆-用) 30가구가 한 마을에서 一家를 이루어 오순도순 정답게 살고 있는 집성촌이다.
 법곳 소종회는 조상님이 물려주신

종중기금으로 종친친목단합여행을 매년 年例行事로 이어오고 있어 더욱 단합된 모습과 화목을 다지고 있다. 작년 백두산여행(33명)에 이어 금년 가을에는 종원 49명이 10월10일(1박 2일) 흥도를 다녀왔다.
 흥도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바위와 바다, 그리고 海松이 잘 어

우려져 빼어난 風光을 자랑하는 곳이였다. 조물주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흥도관광 후 談笑和樂의 시간으로 노래방이 있는 건물 한 채를 잡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가수와 코미디언도 발굴하여 많은 보물을 찾은 듯하였다.

“沈無惡人, 沈無呼宗”이라 하지 않았던가! 靑松沈氏는 모두 靑松 같아서 더운 여름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善한 사람들”이며 모두가 한 뿌리인 “一家親戚”들이다.

매년 대중회주관 「뿌리교육」 에도 우리 소종회에서는 최대한 많이 참석하여, 젊은 종인들에게 가문의 역사와 내력을 자세히 알려 명문가 자손답게 가문의 榮達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 것이며, 대중회주관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대중회 발전에도 한 몫을 담당코자 한다.

大宗會 理事 載緒
 (법곳동 소종중 회장)



잡지의 날에 '화관문화훈장'



沈相基(前 중앙일보 중역실) 일요신문사 회장
 11월 2일(잡지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시향(詩鄉)

시조시인 심성보
 부경대학교수 공학박사

물물이 녹두물이 아트막한 강변마을
 산뿔 우는 모롱이를 돌고 돌아 넘어와서
 노을빛 수려한 두렁 쓰다듬는 푸른 향수.

콩줄 같은 실개천이 찹쌀 같은 토끼풀이
 더불어 살아가는 해오라기 않는 여울
 옛 시인 가락을 타고 흘러흘러 강이다.

물총새 자맥질에 물잠자리 놀라날고
 은어떼 차고 올라 갈대꽃 흔들는데
 눈 맑고 까만 흑염소 뱃이 된지 오래다.

장마는 물러가고 순한 박꽃 등등 팔월
 터질 듯 붉은 석류 잣단 같은 그리움들
 비파강 강물소리에 침병 뛰는 암노루.

*오누이 시인 이호우·이영도의 향리에서

송금안내

任員會費·贊助金·宗報贊助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 인터넷 족보 수단금 계좌 **

• 농협
301-0019-5484-91 (청송심씨대중회)

청송심씨대중회
 전화: (02)2267-7857

나의 노래

시인 沈載琪

온 밤을
 잉크도 나오지 않는 펜으로
 허공 노래해 본다.

아직도 글씨를 쓸 수 있는
 여백과 시간이 있을 때
 쓸쓸한 펜 한 자루 준비하여
 세상 곳곳 떠돌며
 허공 노래나 실컷 써 볼거나.
 온갖 촉수를 세워 볼거나.

어둠 속에서 눈 부릅뜨고
 허공에 써대다가
 날이 밝아 눈뜨면
 서글픈 몸부림,
 허망한 팬터마임일지라도.

麟蹄宗親會任員名單

二〇〇九年十一月

顧問: 재필 재덕 영유
 會長: 병관
 副會長: 재복 영배
 監事: 성열
 事務: 관목
 總理事: 순섭 하흠 삼용 지흠

5처산소 유사 연락처

세	관 직	소재	유사	전화번호
시 조	문림랑공	청 송	相燾	010-6889-7733
			能光	010-9236-2331
2 세조	합문지후공	함 열	載集	011-676-1150
3 세조	청화부원군	안 성	光澤	011-732-5768
4 세조	청성백	연 천	良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輔	019-480-9994
靑松	청송심씨 館長	찬경회관 載洪		054-874-3400
				018-505-7611
	악은공중회 총무	相學		010-7136-3572
淸州	淸 주 회 관			043-286-7857